

코스피	2604.92 (+11.10)	코스닥	859.95 (+6.73)
금리 (연이자율)	2.902 (-0.006)	환율 (원/달러)	1377.80 (+8.10)

건기식부터 미용제품 수요 급증 고부가 신사업 펫케어 선점 경쟁

반려동물을 위한 바이오

〈중〉뷰티·식품도 폭발 성장

애경·LG생건·아모레퍼시픽 등 뷰티업계, 펫시장 진출 견결음 영양식부터 간식·세정제·치약 등 국내외 그룹과 전략적 협업 강화

계약업계 프리미엄 브랜드 공개 해충기피제·유산균 등 제품 출시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품, 건강 사료 등 반려동물 시장 전반에서 반려인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있다. 제약기업이나 뷰티 기업, 식품 기업 등이 반려동물 사업을 확장하면서 해당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21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대기업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은 '펫 뷰티'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애경산업과 LG생활건강은 일찍이 지난 2016년부터 펫 시장에 진출해 현재까지 샴푸, 미스트, 배변용품, 사료 등 다양한 제품군을 구축해 왔다.

펫 시장에 가장 먼저 도전해 온 애경산업의 경우 최근 전국 다이소 매장에 프리미엄 펫케어 브랜드 '휘슬'의 반려견 전용 간식 '프레시한 저키'를 내놨다. 반려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와 협업하게 됐다는 것이 애경산업 측의 설명이다.

휘슬 프레시한 저키는 반려견 선호도가 높은 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연어 등을 원료로 사용하고 저온 건조 방식을 적용해 원료 본연의 영양과 풍미, 쫄깃한 식감 등을 갖췄다. 굵고 긴 막대 형태의 '메가스틱'과 크기가 작은 '영양큐브'로 구성된 반려견 입맛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LG생활건강은 지난 7월 강아지용 풋샴푸 '강아지 발씻자'를 출시했다. 강아지 발씻자는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 발을씻자 팀과 펫 케어 종합 브랜드 시리우스 팀이 함께 만든 제품이다.

특히 기존 사람용 풋샴푸 '발을씻자'를 반려동물용으로 재단장해 선보인 만큼, '강아지는 코와 발 사이가 가까우니 풋샴푸 내용물이 호흡기에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강아지는 사람보다 피부가 연약하다' 등 소비자

의견도 적극 반영됐다는 것이 LG생활건강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LG생활건강과 일본 유니참 그룹의 합작회사인 엘지유니참은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엘지유니참펫케어'를 통해 올해부터 이마트24에서 국내 최초 스펀형 고양이 간식 '냥스푼'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일본에서 처음 출시된 냥스푼은 국내 출시 이전부터 한국인 집사들 사이에서 '일본 여행 구매 필수템'으로 화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23년 10월 자연주의 브랜드 이니스프리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그린펫클럽' 제품군을 내놨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그린펫클럽' 핏폼 워터리스 발세정제와 '그린펫클럽' 산책 올인원 미스트는 반려견 산책 전·후에 필요한 제품들이다. 두 제품 모두 반려견 피부 보습을 위해 설계된 그린티, 동백, 어성초, 청보리, 병풀 추출물 등 식물유래 성분을 활용한 이니스프리만의 '제주 그린 콤플렉스'를 함유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尹대통령-한동훈, 용산서 만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이날 오후 4시54분쯤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차담 형식의 면담에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남녀 임금격차 30% 차 이내로 하지만 여전히 OECD 1위 수준

지난해 남녀 임금격차 29.3%
28년 연속 OECD 1위 가능성

가 9.9%, 미국이 17.0%, 일본이 21.3%였다.

지난해 남녀 임금격차가 역대 처음으로 30% 차(差) 이내로 좁혀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별 간극은 여전히 큰 상태에 머물러 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년 연속으로 임금격차 1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OECD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전년 대비 1.9%포인트(p) 줄어든 29.3%를 기록했다. 남자 중위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값)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는 중위임금 기준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을 받은 것이다.

10년 전인 2013년(36.6%)과 비교하면 격차는 크게 줄었다. 또 역사상 첫 20%대의 격차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등은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성별 임금격차 및 정규·비정규직 격차) 해소에 정책적 중점을 뒀다.

하지만 주요국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도 31.2%로, 회원국 38곳 중 유일하게 30%대를 나타냈다. OECD 평균은 11.4%에 불과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뉴질랜드가 6.3%, 호주

2023년 수치는 집계 중이지만 작년치 비교 역시 한국이 1위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해 4.2%로 격차가 더 줄었다. 미국도 16.4%로 0.5%p 이상 좁혀졌다. 일본은 22.0%로, 2022년에 비해 격차가 소폭 늘었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지난 1990년대까지 50%에 육박할 정도였다. 2004년(39.6%)에 역대 처음 40% 이내로 들어섰으나 그 이후에도 10년 이상 줄곧 36~39% 범위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 34.6%로 줄었고 2018년(34.1%)과 2019년(32.5%), 2020년(31.5%) 등으로 더 줄었다. 그러나 2021년(31.1%)과 2022년(31.2%)에 코로나19 때의 수준으로 돌아선 바 있다.

OECD 회원국 중 그리스는 격차 해소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 2002년 23.6%에서 2006년 17.7%, 2010년 9.9%, 2014년 7.2%까지 줄었다. 2019년 기준 5.9%까지 도달했다. 벨기에에는 1999년 15.2%였으나 2022년 기준 1.1%로 남녀 임금격차를 전면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임금 차이뿐 아니라 고용률 역시 남녀 간 큰 격차를 기록해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빅테크부터 반도체까지... 정리하고 칼바람

구글 전세계서 1.2만명 정리하고 등
글로벌 빅테크사 줄줄이 구조조정
삼성·인텔 등 반도체 업계도 확산



정리하고의 칼바람이 '꿈의 직장'으로 불리던 빅테크에 이어 반도체 업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해 1월부터 정리하고를 이어오며 미국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인텔을 필두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전 업종은 물론 국내까지 여파가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세계 주요 그룹들이 조직개편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비주력 사업은 철화하고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에 투자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미래 신사업 선점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IT 노동자들의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미 IT 업계의 무더기 정리하고로 채용구직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며 "과거 학교, 경력 등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뤄지던 채용이 대규모 정리하고로 인해 모든 것이 초기화했다"고 전했다.

구글과 아마존은 비용을 줄이고 AI 연구개발(R&D)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 해만 2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구글은 전 세계에서 1만2000명을 정리하고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전체직원 중 6~13%를 내보냈다. IT 분야 일자리 감축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레이오프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일자리 약 13만개 이상이 줄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은 총 2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반도체 업계까지 확산됐다. 인텔(Intel),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고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텔이 가장 먼저 정리하고 나섰다. 이는 비주력 사업을 철화는 한편, 차세대 반도체 신사업을 선점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는 IT 기업들의 인원 감축 배경엔 경영 전략이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SMR 4기 건설 11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여야, 시법 조속 처리"
▲ 한 총리, 인니 대통령 취임식 참석... '협력 증진' 윤 친서 전달 /사진 뉴스1

▲ 박찬대, 이태원 유가족 면담... "특조위 예산 편성, 인력도 지원해야"
▲ 과방위 '류희림 연임' 공방 "연임 인정 못해" vs "야당에 파행 책임"



▲ 조국 "11월 2일 대구서 '탄핵다방' 운영... 탄핵 가속페달" /사진 뉴스1
▲ 시민단체, '김건희 불기소' 혐의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